

오비키 어항

시라사키 해안의 현역 항구인 오비키 어항에서는 관광선 크루즈, 생선 손질 워크숍, 스시 만들기 워크숍 등 지역 주도의 액티비티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. 현지 어부의 생활과 전통, 유명한 해안선을 자랑하는 카르스트 지형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참가는 예약제입니다.

해안선을 둘러보는 크루즈에서는 경험 많은 선장이 조종하는 소형 어선을 타고 2억 5,000만 년 전에 형성된 연안의 석회암층을 둘러봅니다. 8세기의 시에서도 노래하는 아름다운 시라사키 해안을 바다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시라사키 크루즈에서만 가능한 체험입니다. 투어 소요시간은 30분 또는 60분이며, 바다의 아치, 팽이갈매기가 군생하는 동지, 옛 석회암 채석장 등을 방문합니다. 60분 코스 크루즈에서는 사전에 연락해두면 팽이갈매기에게 먹이로 줄 물고기를 준비해 줍니다.

항구의 워크숍에서는 어업 관계자가 현지에서 잡은 고등어와 전갱이 등 생선의 비늘 제거 및 손질방법을 알려줍니다. 물고기의 기본적인 구조와 칼 사용법을 설명하면서 일상 속 일화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며 손질법을 시연합니다. 스시 워크숍에서는 김 대신 건조 미역으로 말아서 만드는 현지의 마키즈시(말이 초밥) 만드는 방법을 배웁니다. 또한, 미역 스시의 기원, 미역 가공의 복잡성, 현지에서 채취되는 해조의 종류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.

오비키 어항 바로 옆에는 수영과 스노클링을 하기 좋은 오비키 해변이 있습니다. 이 지역의 다이빙 스쿨에서는 해변에서 사용하는 스노클링 장비를 대여하며, 해안 석회암층 주변의 볼거리 등을 찾아가는 다이빙 투어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. 시라사키 해양공원은 항구에서 자동차로 15분 거리에 있으며, 전망대에서는 석회암 노두에서 해안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.